



10년 전 EBS 기술인협회 워크숍.
워크숍 일정을 계획하고 나니 갑자기 전국에 구제역이
창궐하였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구제역의 발생경로를 지도로
만들어 보도하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계획한 워크숍 장소가
구제역 사전 방역 지역이었습니다.



고민고민 끝에 농장 사장님의 구제역과 관련없다는
말을 믿고 워크숍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쫄쫄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농장 사장님의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푸짐한 고기 파티에
우리는 모두 행복해 하며... 술과 함께
워크숍의 밤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자 한명..두명 흐느적 거리며 모두들 취침 전용방으로 모여 들었고 나또한 정신을 잃고 쓰러져버렸습니
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을 켜고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들어오는 인기척...

평소에는 인자하고 과묵하신 선배님. 가끔 술이 선배님을 변신시키곤 하는데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벌써 자면 어떡해..
막걸리를 안먹었잖아~

맛있는 막걸리를
먹어야지...

마치 아기엄마가
약을 먹이듯..
선배는 한사람 한사람
자는 후배들을 모두
일으켜 막걸리를 친히
다 먹여주었습니다.

30분정도 지났을까
"이방에 내가 왔었었나?"
중얼거리며 선배는
자는 후배들을 다시
일으켜 막걸리를 또
한대접 두대접...
자리를 피하는 이,
자는척하는 후배가 늘어나
고..



자~ 막걸리는 정말
좋은 술이야. 쪽~

아까전에
먹은거 같은데.. 읊



어푸!
어푸!

꿈속에서 막걸리로 세수도 하고 배달도 했다가... 말도 안되는 막걸리 꿈을 계속 꾸다가



다음날 아침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던 워크숍...



에고 머리아...



굿모닝! 잘들 잤어~
다들 과음했나보군,
적당히 먹어야지
쫄쫄

정작 막걸리 선배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잘 자고 일어났다는... 우리보다 멀쩡했다는...